

부록

해외 공공디자인 사례

1. 인간이 창조해낸 곳, 네덜란드
2. 고풍스런 모습의 디자인 국가, 벨기에

1. 인간이 창조해낸 곳 네덜란드

○지면이 해수면 보다 낮고 대부분 국토가 쓸모없는 습지라는 지형적인 악조건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해낸 네덜란드, 세상은 신이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인간이 창조해낸 땅이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관통하며 연결하는 운하는 바로 이 사람의 힘이 이루어낸 상징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인이 백인종 중에서도 유난히 장신인 이유는 전후 국민 보건을 내다본 정책의 결과로 우유 섭취 장려에 의한 영양소이 섭취, 스포츠에 의한 체력 강화(자전거 타기는 포함되지 않음), 청소년 시기의 충분한 수면 등에서 기인한다.

1) 옛스럽이 오히려 쾌적한 암스테르담

- 네덜란드는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면적이 220km² 인구 73만 9천명에 지나지 않는 규모로 우리의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스프롤 현상 등 도시 문제의 발생이 없이 쾌적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본래 늪지였던 이곳은 17세기 네덜란드가 세계의 맹주였던 시기에 도시확장 계획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늪지에서 물을 빼고 개간하여 부채꼴 형태의 구역에 운하망을 수립하고 그 중간 중간의 지역을 채움으로써 도시를 확장하였다.
- 암스테르담의 시가지를 형성하는 건축물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박공 구조의 주택들과 수많은 기념비적 건물들을 포함해 동질성을 갖는 총체적 도시를 개발했다.
- 석재를 사용하는 유럽의 다른 도시와 달리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이 균일한 모습과 규모로 어깨를 마주하며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 양식과 동간의 간격이 없는 배치는 석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며, 단독건축물로는 기반이 약해 지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 그럼에도 수세기를 지나는 동안 건물이 좌우 또는 전면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러한 광경도 암스테르담의 고유한 정취를 더해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잘 보존된 그 시절의 벽돌구조의 건축물과 도시 모습 암스테르담의 상징이 되고 있다.

2) 느리면서 활력 있는 교통수단

- 고풍스런 도시의 건축물이 정적인 암스테르담의 기반이라고 하면 그사이를 달리는 트램(굴절버스)과 자전거는 도시의 특징을 지워주는 동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특히 네덜란드의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가 자전거이다. 암스테르담만 하더라도 광장 옆에 위치한 3층인 대규모의 자전거 주차타워에 꽉 채워진 광경에서 보듯이 자전거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 자전거 도시로 널리 알려진 코펜하겐이나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자전거 무인시스템인 벨리브(Velib)의 도시 파리의 자전거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7%로 전 유럽에서 가장 높다. 네덜란드에 이어 덴마크(19%) 독일(10%) 등 교통분담률 10%를 넘고 있다.
- 자전거 도시의 원조답게 자전거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타워 입구에서 수납하면 내부에서 빈 공간에 자동으로 주차하는 자전거 주차타워)
- 암스테르담의 도로는 트램(굴절버스)-차도-보도-자전거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 중앙에 트램 1차로가 있고 양옆으로 2차로씩, 왕복 4차로다. 차도 다음에는 차로의 1.5 배의 보도가 이어지고, 도로 맨 끝으로 1차로 넓이의 자전거도로가 있다. 차로는 전체 도로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도로 건널목에는 자전거와 보행 횡단로가 각기 분리돼 있고, 차량용 신호등과 자전거용 신호등이 따로 있다. 자전거용 신호등의 경우, 위쪽과 아래쪽에 신호등을 2개씩 달아놓았다. 아래 신호등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설계되었다.
- 차로와 자전거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우선이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자전거가 먼저 출발하는 게 규칙이다. 자전거 차로에서는 보행자 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라 연수 내내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 자전거와 트램은 도시의 동적인 속도(빠르기)를 보여주는 바로메타인데, 우리의 도시처럼 도심을 질주하는 자동차로 인한 속도감에 비해 여유 있는 느낌과 함께 건강한 도시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3) 암스테르담의 동맥, 운하

- 암스테르담을 연결하는 주요 네트워크는 도로가 아닌 거미줄처럼 연결된 운하에 의해서이다. 2010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한 유서 깊은 운하 구역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수립된 새로운 항구도시를 위한 프로젝트에 따라 이루어졌다.
- 운하 구역은 유서 깊은 구 시가와, 구 시가를 둘러싼 중세 항구의 서쪽과 남쪽 운하망으로 구성된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황금기에 도시의 요새화된 경계부를 안쪽으로 감싸 안고 도시 외곽 경계지점이 된 싱겔그라흐트(싱겔 운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 북해와 이어지는 운하는 지금도 수운의 통로로 이용되며 선상주택(선박을 고정시켜 놓은 형태와 수중에 기초를 설치하여 주택을 올린 수상가옥 형태가 있음)이 눈에 띄었으며, 운하를 운행하는 유람선이 관광자원화 되어 있다.

3) 예술문화의 보고 국립미술관

- 네덜란드는 산업, 스포츠 등 외형적인 모습에 가려 드러나지 않는 가치있는 자산이 있는데 바로 회화예술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예술적 가치 외에도 네덜란드를 포함한 프랑드르는 회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이루어낸 본 고장이다.
- 고딕 회화의 사실주의를 극복해나가는 장소가 바로 이곳으로 이탈리아의 화가들과는 달리 새로운 사조인 국제적 양식(후기 고딕)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회화의 표현 한계를 뛰어넘어 가시적 현실의 정복을 이룬 유채(油彩/유화)도 프랑드르를 기반으로 하는 플레말레 화가와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에 의해 완성 되었다.
- 16세기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여파로 북부지방은 독립국가인 네덜란드로 출발한 반면 남쪽 지방인 벨기에는 스페인의 통치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 회화는 이탈리아적인 요소를 천천히 조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이 시기의 네덜란드 회화의 두 가지 주요 관심사는 '이탈리아 회화에서의 동화'와 전통적인 종교적 주제를 보완하여 레퍼토리를 부여한 것으로 풍경화, 정물화, 세속화가 비로서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 이러한 변화는 미술가의 개성적인 재능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회화 주문이 점차 드물어지게 되자 서민들의 세속적인 취향에 호응할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당시 네덜란드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성상파괴 열풍이 널리 퍼져있었다.)
-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컬렉션을 모아놓은 반 고흐 미술관과 마주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립미술관(RIJKS MUSEUM)은 15세기 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의 회화 작품 등이 250개의 전시실에 5,000점이 넘게 전시되고 있다.
- 네덜란드 회화의 모태가 되는 15세기 이탈리아의 회화인 피에르 디 코시모, 베네치아파 화가인 카를로 크리벨리의 작품과 15세기에서 16

세기 교회의 제단을 장식했던 반 오스트사넨(Jacob Cornelisz van Oostsanen)의 패널화, 메너리즘 회화, 초상화, 카라바지오를 추종하던 위트레흐트의 화가들인 브루젠, 회화의 황금기인 17세기풍경화, 정물화, 초상화가 전시되고 있으며, 안 반 고이엔, 초상화의 거장 프란스 할스, 빛의 화가로 불리우는 최고의 거장 렘브란트 반 리진의 '야경' 등이 전시되고 있다.

4) 자원의 상품화

①잔세스칸스(Zaanse Schans)

-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잔 강변의 마을로서, 풍차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의 민속촌이라 할 수 있다.
-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네덜란드의 명물인 풍차와 17~18세기의 목조가옥이 곡곡에 남아 있고 양들이 방목되고 있어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광경은 플랑드르 화가들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목가적인 소재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이다.
- 네덜란드의 풍차는 우리가 알고 있던 물을 펴 올리던 양수용도 보다는 제재나 안료 가공에 동력으로 주로 사용되었었다. (원목을 1차 가공하여 수상로를 통하여 공급하던 요충지였으며, 유화물감의 발명에서 보듯 안료 등 화학 산업 등이 발달된 곳)
- 18세기에는 700개가 넘는 풍차가 있었으나 산업혁명의 기계화에 밀려 지금은 관광용으로 몇 개만 남아 있다.
- 강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쪽에는 나막신을 만들어 파는 상점과 음식점 등이 있다. 목장 앞의 치즈 공장에서는 맛있는 치즈와 우유를 맛볼 수 있고 풍차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다. 연식이 꽤 되어 보이는 프랑스제 목공기계를 이용하여 나막신을 가공하는 장면을 관광

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치즈를 만드는 과정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풍차마을의 운영은 지역 농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영농조합 형태로 각기 재배나 목축 가공, 판매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기념품과 낙농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네덜란드 고유의상을 갖춰 입은 판매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②유럽의 봄 큐겐호프(Keukenhof)

- 네덜란드의 주요 생산물인 튤립을 주제로 암스테르담에서 약 18km 떨어진 리세(Lisse)에 있는 큐겐호프 공원에서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열리는 꽃의 축제로 화훼산업의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본래 이 지역 영주인 백작의 사냥터였던 곳을 15세기 백작 부인의 정원으로 조성한 게 유력해 되었다. 튤립 축제를 시작한지는 60년이 되었으며, 올해는 'Heart of Europe Poland'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 튤립이 만개하는 3월말에서 5월말 사이에는 큐겐호프 최대의 경관을 볼수 있는 시기로, 튤립과 히아신스, 수선화 등 엄청난 규모의 구근 화훼류와 아름다운 관목등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찬다.(연수 시기가 튤립이 만개하기 직전인 4월 초라서 제대로 된 튤립은 보지 못함)
- 안면도꽃박람회를 두차례 치른 우리로서는 관심이 많은 장소로 기존의 정원을 기반으로 매년 개최하는 특성으로, 인공물이나 인위적인 조성에 의한 전시연출 보다는 강과 나무와 잔디, 호수 등 본래의 자연 여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꽃 전시 이외에도 설치예술,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지며 올해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이동식 자동연주기가 네덜란드 민속음악을 연주하고 관람객들(특히 노년 부부들이 많음)이 호응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③하이네켄 체험전시관(Heineken Experience)

-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하이네켄 맥주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암스테르담 광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체험관은 1867년에 세워져 1980년대 말까지 양조장으로 사용되다가 관광객을 위한 체험 시음장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 하이네켄은 1863년 게라드 아드리안 하이네켄에 의해 설립된 맥주 제조회사로 소규모의 맥주 유통 시장에서 대량생산 유통을 시작한 호시를 이뤘다. 1868년 암스테르담에 양조장을 건립하였고, 1874년 로테르담에도 건립하였다.
- 하이네켄 맥주의 독특한 풍미는 특유의 효소 사용에 있는데, 1866년 루이 파스퇴르의 제자인 엘리온 박사가 에이-이스트(A-Yeast) 배양에 성공한 뒤 저면발효(Bottom-Fermentation)를 활용한 양조기법으로 현재까지 하이네켄의 독특한 맛을 이어오고 있다.
- 이 체험관은 입장 때에 단추가 박힌 고무 팔찌를 채워주는데(단추하나에 1잔 시음) 관람도중과 마지막 코스인 시음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시 콘텐츠는 하이네켄의 역사(용기, 라벨, 유통 방식 등), 초기에 사용되던 설비 등 고풍적인 요소와 4D 동영상(움직이는 관람석, 물 분사)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결합되어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있다.
-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콘텐츠가 눈을 끄는데 네덜란드의 경관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이후에 메일로 보내줌), 자기 이름이 새겨진 맥주병 주문 등이 이채로웠다.

④ 큐브하우스(Cubic House)

- 네덜란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렘 쿨하스 등 현대 건축가들을 배출한 곳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사고가 가능한 풍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로테르담 블라크 역 앞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기괴하기도 한 건물군들이 있다. 건축가들의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유감없이 발휘하

여 조성한 일종의 새로운 발상을 실현하는 건축 전시장이다.

- 큐브하우스 1984년 해체주의 건축가 피트 블룸(1934~1999)의 설계로 만들어진 집단 주택으로 육교와 같은 사각기둥 위에 정육면체가 평편한 자세가 아니라 45도 기울어진 채 연결되어 있다. 모두 38개의 작은 큐브와 2개의 대형 큐브, 14개의 상점이 서로 맞물려 있다. 3층까지 관통하는 중앙의 나선형 계단으로 아래층부터 연결되며 각 방들이 배열되어 있다. 1층은 거실과 식당, 2층은 서재, 침실, 욕실, 3층은 온실이나 휴식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 건축가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발상도 대단하지만 이러한 건축가들의 실험적인 시도를 시민들이 기꺼이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움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5) 옥외광고물

-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유럽의 여니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점의 간판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부착되어 있다. 상가 건물의 주거방식(1층은 상점, 2층은 사무실, 3층 이상은 주거)의 차이, 지번에 의존한 해당 번지수 찾기의 수월, 한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네덜란드는 상공업자들인 시민에 의해 형성된 국가로 상공업자의 동업자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길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서의 동종 점포의 개설 등 과당 경쟁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부 강령은 취급 품목 등 업종의 선택은 물론 확장되어서는 간판의 부착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와 같은 간판에 의한 경쟁 양상을 볼 수가 없다.
- 여기에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중세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로 지금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는 규제로 인하여 간판의 규모나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업종에 따라 기준 이상의 면적이나, 수량, 형태, 돌출간판과 같은 부가 간판을 부착할 경우 시 당국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간판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간판을 부착하기는 부담이 크다.

6) 암스테르담의 도시 이미지 정책

- 네덜란드는 공공디자인의 효용가치를 일찍 부터 인식하여 도입하고 실현하였다. 이제는 범용적인 수단이 된 시설의 안내 유도 사인 시스템의 효시도 1963년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의 안내사인에서 비롯되었다.
*노란색 바탕에 검점색 문자로 구역을 기호화 하여 표시한 사인으로 네덜란드의 디자인 에이전시인 토탈 아이덴티티에서 수행하였고 있다.
- 네덜란드는 회화예술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가로 상업 및 무역의 발달로 마케팅 관점에 의거한 디자인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네덜란드의 디자인 경향은 국가의 형성과 자연환경과 일치하는데 장식적인 요소나 부가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는 실용주의와 단순주의/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지향하고 있다.
- 현재 암스테르담 시의 이미지 정책, 300년전의 역사적인 가치와 DNA를 찾는 일과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에 균형(중세도시와 현대도시의 두얼굴을 가진 균형), 경제, 사회적 이익을 겨냥한 정부 지원 및 보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 엠블렘과 도시브랜드는 분리되어 있으며, 브랜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 참여, 공연 등을 통한 홍보의 확산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의 암스테르담 도시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시내의 중심광장에 입체적인 조형물(바라보는 조형물이 아닌 실제 만져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을 조성하여 별 다른 비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본래 1개 뿐인 조형물을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1개소를 추가로 설치 하였다.
- i-Base를 통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 네덜란드 정부는 200개가 넘는 모든 부처, 서비스, 대행소, 공공기관에서 단일 시아이를 적용하기로 결

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사자 두 마리가 형상화 된 엠블럼 형태의 통일된 심벌을 모태로 하는 웨밀리 브랜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파생되는 기관은 보조색의 사용을 통한 분화를 이루고 있다.

- 경직될 수 있는 관공서(경찰 소방서) 등의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변신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과 호응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floriade2022'(우리의 꽃박에 해당)와 같은 대규모 행사의 유치와 홍보 운영과정을 통한 도시(지역) 활성화와 장소 마케팅으로 활용을 구상하고 있다. 행사 전에 미리 개장 하여 장소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한다.
- 이미지 자전거로 대표되는 친환경 도시이면서 자원재생을 통한 클린, 그린도시, IJburg프로젝트(수변 공동체 주거지역 조성계획으로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참여 진행)

2. 고풍스런 모습의 디자인 국가, 벨기에

○ 벨기에의 중세도시인 브뤼헤(Brugge), 겐트(Gand) 등은 보기 드물게 옛 모습이 대부분 보전되고 있는 역사도시로 유네스코의 역사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되었다. 당시 상업과 무역이 요충지로서 막대한 번성의 흔적이 대규모의 성당 건축과 예술품으로 남아있다.

○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그 뿌리를 같이 하면서도 언어, 관습, 정서 등에서 차별의 보이고 있다. 서유럽 중 손에 꼽히는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이웃하면서 상대적 소외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수년전부터 정부 주도의 전략사업으로 디자인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Belgium is Design' 이미지 확립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2) 아름다운 역사도시들

① 벨기에(Brussels/Bruxelles)

- 19개의 시(市)가 합병하여 이루어진 광역 시이며, 그중 가장 중심이 되

는 브뤼셀시(City of Brussels)는 이 지구의 수도로서 벨기에를 대표하고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 17세기경에 이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제3의 파리'라는 평을 받은 브뤼셀 시가는 서쪽 상업구와 동쪽 주택구로 나뉘져 있는데, 주택구의 중앙부에는 루아얄로(路)가 뚫려 있고, 이를 따라 국회·왕궁·박물관·재판소 등의 건물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 브뤼셀은 벨기에의 플라망(네덜란드)어 사용지역에 속해 있으나, 사실은 2개 언어 지역의 특색이 농후하여 거리 이름은 프랑스어와 플라망어로 표시되며, 어디를 가나 프랑스어가 통용된다.
- 유명한 레이스·용단을 비롯하여 모직물·면직물·염색·가구·종이·인쇄·출판 등 각종 산업이 발달한 남부의 공업구에서는 브뤼셀의 고유한 방언이 사용된다.
- 상점이 즐비한 상업구의 중앙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그랑플라스가 있으며, 그 근처에는 유명한 '오줌싸개 동상'(Manneken-Pis/애칭 : 줄리앙)이 서 있다. 상업구의 일부분에는 중세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곳도 있으나 도시는 전체적으로 근대화가 되면서 고층건축물도 들어서고 있다.
- 벨기에에는 세계에서 일본인 다음가는 만화광으로 유명한 이들은 만화를 아이들의 장르로 제쳐두지 않는다. 이곳에서 그려져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만화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에서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작품으로 '뽕뽕의 모험'과 '개구장이 스머프'를 들 수 있다.
- 1929년에 만화가 에르제(Herge)가 용감한 소년기자 뽕뽕과 그의 애견 밀루의 모험을 그린 시리즈는 현재 세계 60여 개국에 50개 언어로 소개되어 3억 부가 넘게 팔린 이 시리즈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현재 브뤼셀의 지하철 스토크 역에는 뽕뽕의 모험에 나오는 140개 캐릭터를 소재로 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137미터에 걸쳐 있는 이 대작의 스케치는 작가 에르제가 사망하기 직전인 1983년에 그린 것이다.

1988년 8월 31일 역사 개장에 맞춰서 완성된 이 프레스코화는 땡땡의 팬들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 벨기에 만화가 페요(Peyo, 본명 피에르 켈리포드 Pierre Culliford)의 펜끝에서 탄생한 스머프(Smurfs). 크기는 쥐만 하고, 몸 색깔은 푸른 색, 똑같이 하얀 바지와 모자를 갖추고, 사이좋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스머프들과 사악한 마법사 가가멜과 그의 고양이 아즈라엘이 평화로운 일상과 긴박을 반복해준다. 1958년에 첫 선을 보인 이 만화는 1981년 미국에서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만들어진 이래, 전 세계에 푸른 웃음을 선사해왔다.

②브뤼헤(Brugge/Bruges)

-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 소속 베스트플란데렌(웨스트플랑드르주)주의 북쪽 끝에 위치한 주도로 브뤼셀에서 서북쪽으로 90km 떨어져 있다. 철도·운하의 요지로, 시내에도 중형으로 수로가 뻗어 있으며, 많은 다리로 연결된 아름다운 도시이다. 브뤼헤라는 이름은 다리에서 유래했다.
- 12세기 초 보드앵 2세가 성을 쌓은 이래 1180년까지 플랑드르의 수도를 이루었다. 그 후 정치적 중심은 겐트로 옮겨졌으나, 북서유럽의 대표적인 중세도시로서의 기능은 남아 13~14세기에는 교역시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영국 양모의 수입항이자 한자동맹의 북쪽 상업망의 중계지인 서유럽 유수의 상업도시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중세의 성당이 건설되었다.
- 15세기에 이르러 즈웨인만(灣)의 토사퇴적과 상업활동의 기반이었던 플랑드르 지방의 모직물공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점차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상업상의 지배권도 안트베르펜으로 옮겨졌다. 15세기 말부터 브뤼헤는 농산물 중심의 시장이 되었으며, 중산층 지주·시민의 도시가 되었다.
- 19세기 말 운하개통으로 외항을 갖게 되면서 잠자는 브뤼헤에서 무역도시로 부흥하게 되었다. 레이스·금속·양조·인쇄 등의 공업중심지를

이루며, 아름다운 중세 건물이 많아 관광지로서도 알려져 있다. 미켈란젤로의 '성모자상'이 있는 노트르담 성당을 비롯하여 신트 사르바틀(구세주) 대성당, 온세 리베 브로우(성모)성당(13~15세기), 하이리프 블르트(성혈聖血)성당(1150년 기공) 등의 성당건축, 시의 중앙 광장에 면한 마르크트 광장(시장광장, 13세기)과 광장 옆에 높이 솟은 80m의 종탑(13세기), 고딕 양식의 시청사(14세기) 등의 건축이 있다. 뎀링 미술관, 플랑드르 화파의 그림이 전시된 그뢰닝게 미술관 등이 있다.

*노트르담(프랑스어로 우리들의 귀부인)은 지명이 아니라 성모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에 붙는 명칭으로 성모마리아 성당으로 이해하면 된다. 파리를 비롯하여 안트베르펜에도 노트르담 성당이 있다.

③ 겐트(Gent/Ghent)

- 벨기에 오스트플란데렌(이스트플랑드르주)의 주도(州都). 브뤼셀 북서쪽 50km, 저평한 평야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헬데강(江)과 지류인 리스강의 합류점에 위치한 겐트 운하로 북해와 외항기선의 출입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으로 9세기경에 이미 플랑드르 후작가의 성이 구축되었다. 13세기 이전에 플랑드르 방직의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부유층이 형성되고 자치를 누렸다.
- 스페인에 대한 독립전쟁에서는 플랑드르 여러 도시의 맹주로서 싸웠으나 1584년 에스파냐에게 점령되었다가 1794년 합스부르크가(家)의 힘으로 해방되었다. 섬유공업 외에 기계공업 등이 성하다. 9~12세기의 고성(古城), 13~16세기의 고딕식 대성당, 12세기의 로마네스크풍 교회, 14~16세기의 시청사 및 1816년 창립한 대학 등이 있다.
- 도시 중심과 남쪽에는 1816년에 창설된 겐트 대학교 (Ghent University) 유명한 연구소들이 자리잡고 있는 대학도시이며 벨기에의 브뤼헤 못지않게 잘 보존된 중세시대 건물들로 인해 이 도시에서도 관광산업이 점점 도시 총 생산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④ 안트베르펜(Antwerp/Antwerpen/Anvers)

- 벨기에 북부의 상업·무역도시로 유럽 4대 항구 중 하나이다. 소설 '플란더스의 개'로 유명하기도 한 안트베르펜은 수도인 브뤼셀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다.
- 15세기 후반 이래 무역과 모직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브뤼헤를 능가하게 되고, 16세기 전반에는 스페인의 신대륙무역과 포르투갈의 동인도무역의 결절점으로 유럽 제일의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6~17세기 스페인 지배 시에는 동란에도 불구하고 예술·문화의 도시로서도 번영하였다. 15세기에 이 도시에서 일어난 보석연마기술은 현재의 다이아몬드 공업의 원천이 되었으며 수공업의 전통은 예술·문화 분야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 금융업도 성황을 이루어 1531년에는 유럽 최초의 주식거래소도 생겼으며 지방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독립으로 스헬데강의 항행이 금지된 뒤부터 암스테르담에 그 지위를 빼앗겼다. 1863년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스헬데강의 통행권을 매수한 뒤 근대적인 무역항으로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또한 고딕 건축과 르네상스 미술을 자랑하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16세기 마세이스의 마니에리스트와 로마니스트, 17세기의 루벤스, 반 다이크, 올단스, 인쇄업의 플란틴(Christophel Plantin, 1520경~1589)과 그 후세자 모레투스(Moretus, 1543경~1610)등을 배출하였다. 123m의 첨탑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 최대의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성당은 내부에 플라망파의 거장 P.P.루벤스의 명작을 소장하고 있다. 네덜란드풍 르네상스 양식의 걸작인 시청사와 조합사무소(길드하우스), 고성(古城)이었던 스텐성 일부를 개조한 해양박물관, 16~17세기의 플랑드르파의 명화를 간직한 미술관, 루벤스의 주택을 복원한 루벤스하우스, 아프리카 콩고산(産)의 진귀한 동물이 있는 동물원 등도 유명하다.

2) 디자인 국가로의 변신

-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발달된 곳이었고 이런 연고로 지금도 디자인 국가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14~15세기 벨기에는 직물을 유럽 각국에 수출하면서 직물산업은 더욱 활발해졌고 15세기 후반에는 브뤼셀은 테피스트리의 중심지가 되었다. 오늘날 팔리고 있는 테피스트리는 대부분 기계생산물로 벽장식, 커튼, 가방, 쿠션 등 여러 모양의 디자인이 보이고 있다
- 과거 여자들만의 장소였던 베기호프 수도원에서는 테피스트리와 레이스를 뜬 장식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벨기에의 손으로 짠 레이스는 상당히 유명하여 고가에 팔렸다. 지금은 전통적인 방식과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레이스와 테피스트리는 브뤼셀과 브리헤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거의 주문 제작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

①정부 전략사업으로 디자인산업 육성 'Made in Belgian Design'

- 국제무대에서 벨기에 디자인(Belgian Design)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뒤에는 벨기에 디자이너들의 자질과 양성기관의 노력과 함께 벨기에 국내는 물론 해외를 겨냥한 벨기에 정부당국의 홍보 노력에 기인하고 있다.

②정부당국은 'Belgian Design'는 곧 우수한 품질이라는 이미지 연상을 위해 특별지원부서를 신설하고 디자인 지원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벨기에 지방정부당국(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지방정부)은 자기 지방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 지원을 위해 2007년, 특별지원부서를 신설했다.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무역·투자 진흥청(AWEX) 내에 WDBM (Wallonie-Bruxelles Design Mode)를 신설하고 디자이너들의 국제 디자인 전시회 및 국제디자인 콘테스트 참여 지원, 국제디자인분야의 결정권자 및 신문기자를 초대, 디자이너와 작품을 만나는 기회

마련, 브로슈어, 카탈로그, CD-ROM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별개의 기관인 'Design Vlaanderen'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② 민간 디자인계의 홍보활동 활발

- 2005년에는 겐트(Ghent, 벨기에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에 소재한 디자인박물관과 Hornu Image(알로니아에 있는 건축·디자인 협회), Pro Materia(Creative Design Consultancy Agency, 비영리단체) 공동주최로 처음으로 'Label-Design.be Design in Belgium After 2000'이라는 명제 하에 135명의 벨기에 디자이너의 작품 330점을 Grand Hornu Meusium에서 전시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 이어 Grand Hornu 박물관에서는 지속적인 디자인전시를 통한 디자이너의 저변 확대와 벨기에 디자인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③ 디자인은 경제발달과 환경개선 요인

- 디자인이 지역산업 발달 및 경기진작, 국제화 등 전반적 경제 발전 전략의 중요 요소이며, 경제침체의 방패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 한편 벨기에 디자인계에서는 폐기 또는 재생 자재를 사용한 디자인 제품 전시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키는 한편,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문제를 제품 생산과정에 통합한 디자인을 창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벨기의 세계적 디자이너 Charles Kaisin은 재생자재를 사용하기로도 유명)

5. 시사점

○서부유럽의 교역과 운송의 중심지이며 EU국가 중에서도 그 기반이 확고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그 태동이 같으면서도 다른 면모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을

1)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 대부분 유럽도시가 그러하듯이 형성시기가 오래되어 도시를 이루는 건축물과 가로가 고풍스러우며, 도시 공간은 지금과 같은 자동차 중심의 체계로 주거하기에는 비좁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물리적 여건에서도 주거형태와 대중교통 수단의 적합한 선택을 통한 생활의 형태를 찾고 있다.
- 무한대로 확장하는 거대도시가 아닌 연수 대상도시들은 컴팩트한 공간 구조에서 체계화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구조, 도시의 운용방식, 삶의 방식 등이 근래에 회자되고 있는 컴팩트시티(그린, 에코 시트의 개념을 포함한)이며 이미 오래전에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여유 없는 공간의 도시에서 가로 시설물의 설치 방식에 있어서도 설치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적 영역에 설치하는 예(가로등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개인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부착)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로 시설물 중 배전반과 같이 보행 공간을 차지하는 시설물을 보도에 면한 개인 건축물 내에 설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2) 옛 도시를 어떻게 변모 할 것인가?

- 공주와 부여 등 역사도시를 갖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비중 있는 역사의 흔적이 남은 건조물이 없이 다양한 시대의 모습이 혼재하는 지역의 일관된 이미지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 브뤼헤나 켄트와 같은 역사도시의 본질을 이루는 건축물과 도시구조물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한 시대의 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 로마네스크 이전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본격적인 고딕양식, 르네상스 양식 등 수백 년 간의 스타일이 구사되고 있다.
- 그럼에도 각각의 대상이 두드러지지 않고 이전과 이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포괄적인 재료의 공통 사용, 색채의 조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 건축의 보수 흔적을 보더라도 원형의 엄격한 재현 보다는 보수 시대에 맞는 재료의 사용(석재 벽돌의 보수를 동색 계열의 점토 벽돌로)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움과 정지된 역사가 아닌 흐르는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3) 전통과 현대의 균형

- 지역의 이미지의 초점 방향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란이 많다. 백제의 후예임을 강조하는 충남에서도 지역의 이미지를 제정하거나 구사함에 있어 과거와 미래 또는 현재와 같은 시점의 선택에
- 보편적인 선입견으로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의 도시에서의 현대적인 인공물(가로시설물 등)의 형태는 고풍스러울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럼에도 장소에 따라 스타일을 유지하되 반드시 고풍스러운 디자인은 아니며 모던한 형태의 디자인이 옛스러운 도시의 배경과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고도 제 모습 찾기 등의 과정에서 고찰하여야 하며 고도에 이미지에 맞는 기반 시설들의 스타일과 형태에 대한 방향과 기준이 검색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상징만들기, 스토리텔링/이어지는 스토리 만들기

- 개활지에 정착한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열거하기에도 복잡할 정도로 열

강과의 주도권 다툼, 지배, 피지배와 같이 부침이 반복되는 국가였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이야기 거리가 풍부하였다.

- 특히, 무역과 상업의 융성으로 일찍 부터 자치권을 갖은 국가에서는 분할 된 지방의 영주, 예술가, 종교인 등에 대한 부각, 이른바 영웅 만 들기가 보편화 되어 있었다. 각 지역에 산재한 고성, 성당과 같은 주요 건축물에는 반드시 이야기가 덧붙여 흥미를 배가 시키며 대상을 뚜렷 하게 각인시켜준다.
- 자기 나라의 70배 정도 큰 콩고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 벨기에는 콩고의 특산물의 코코아를 상품화한 초콜릿으로 유명하다(고다이 바, 길리아, 뉘하우스, 코트도르, 레오니다스, 트러플 등). 단순히 품 미와 품질만이 아닌 이야기(백성의 세금을 삭감하기 위해 옷을 벗 은 백작부인의 일화)를 가미한 고다이바의 예에서도 찾을 수 있다.
- 브뤼셀 시민들의 유머감과 이야기 만들기는 브뤼셀에서 가장 유명한 동상, 마네크-피스(Manneken-Pis)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직접 찾 아가면 그 규모에 누구나 실망하지만 이 55cm짜리 자그마한 동상은 온갖 이야깃거리들을 가지고 있다. 브뤼셀을 침략한 프랑스군이 브뤼 셀에 불을 질렀는데, 한 소년이 오줌으로 불을 꺾던 사건(오줌싸개 소 년의 동상이 오줌을 누는 한 브뤼셀은 안전하다)으로 시작하여, 1745년 영국에 약탈되어 겪은 고초, 1817년에 도난당하여 조각난 것을 이어붙 인 이야기등 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데 외국의 정상들이 방문할 때 마다 소년의 옷을 선물로 챙겨왔고 600벌이 넘는 옷이 그랑플라스의 매종 뒤 루아 시립박물관에 있는 옷장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은 오줌 싸는 소녀의 동상도 마련하는 등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있다.

5) 일관된 지역 이미지 전략

- 네덜란드의 i-Base 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각적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 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체계 없는 이미지 체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i-Base를 통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단순화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도 본청, 산하 기관, 사업소, 연관 기관의 이미지가 분산되어 있어 이들 기관 간에 공통 요인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미지의 일관화 및 개별적인 운용 시스템의 수립이 도입되어야 한다.

6) 지자체의 디자인 지원

- 공공디자인의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디자인 규모 및 시각에서 통합적인 규모의 지역 문화를 다루는 디자인 수준이 요구된다.

*공공디자인 연구소 외에도 중소 규모의 공공 시설물 제작업체 신설이 예상된다.

- 공공디자인 부문 외에 전자·정보기기 및 자동차 관련 디자인 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고품격,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차원의 부문별 디자인 지원이 요구된다.
- 기존의 시각·포장 위주의 디자인 수요에서 제품 디자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기술, 산업과 융합된 폭넓은 디자인 분야의 서비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인적 및 시설 자원을 갖추고 있는 관련 대학, 연구소 등 역량을 충분히 가동하기 위한 디자인 허브 역할의 충남지역 디자인 통합센터(가칭)의 조직으로 지자체의 디자인 분야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